

체어퍼슨 노트

CHAIRPERSON NOTE

[경제] 2017년 7월 산업활동 동향

[산업] 최근 호텔업 동향 및 시사점

[동북아] 한중일 관광경쟁력 평가와 시사점

[부표] 국내 경기 및 산업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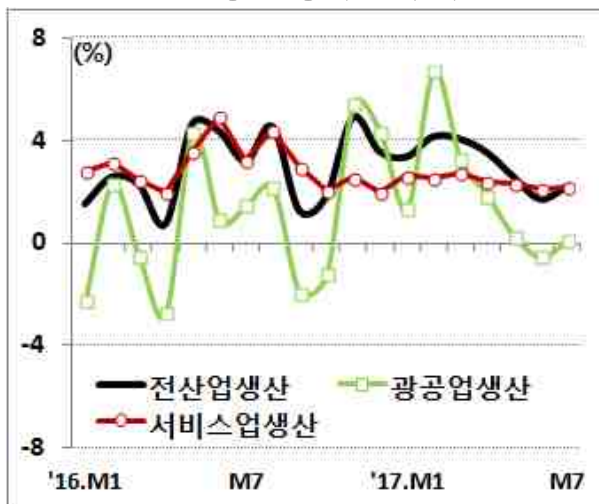


□ 2017년 7월 산업활동 동향

○ 2017년 7월 산업생산과 소매판매 증가율이 소폭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전체적인 경기는 회복 기조를 유지

- (산업생산) 2017년 2월 이후 하락세를 보이던 전산업생산 증가율은 2017년 7월 소폭 반등하는 모습
 - (전산업) 2017년 7월 전산업생산 증가율은 전년동월대비 2.2%로 6월에 비해 상승함
 - (광공업) 광공업생산 증가율은 감소세에서 증가세(0.1%)로 전환. 단 제조업은 조선, 반도체 등 주력 산업이 부진으로 감소세(△0.1%)를 유지함
 - (서비스업) 서비스생산 증가율은 2%대 중반을 넘지 못하고 2017년 이후 보합세
- (소비 및 투자) 2017년 7월 소매판매 증가율이 반등하고 있으며 설비투자과 건설기성 증가율도 양호한 흐름을 유지
 - (소비) 2017년 7월 소매판매 증가율은 전년동월대비 3.5%로 6월에 비해 크게 상승. 특히 내구재 소비가 큰 폭으로 증가하여 향후 경기회복 가능성이 높음
 - (투자) 설비투자과 건설기성 증가율이 각각 25.0%, 14.1%로 2017년 들어 꾸준히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시사점) 전체적인 경기가 회복 기조를 보이고 있으나, 본격적인 확장 국면으로의 진입을 저해하는 요인들이 존재하므로 향후 경기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필요

< 산업생산 증가율 추이 >



자료 : 통계청.
주 : 전년동기대비.

< 소비 및 투자 증가율 추이 >



자료 : 통계청.
주 : 전년동기대비.

□ 최근 호텔업 동향 및 시사점

○ (현황)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이 급감함에 따라 최근 국내 호텔업 경기는 부진한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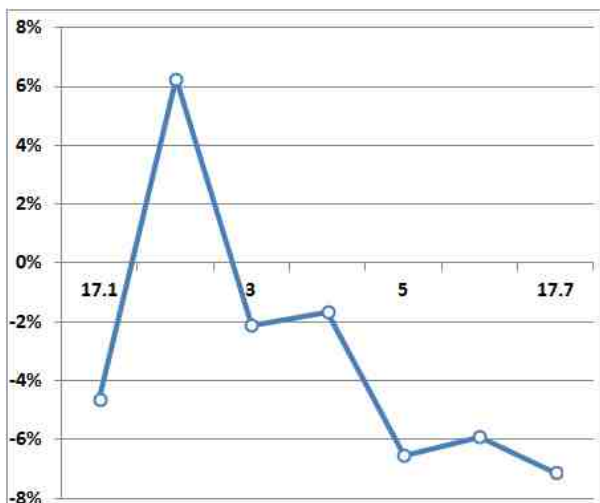
- 2017년 들어 호텔업 생산지수는 전년동월대비 감소세를 지속

- 호텔업 생산지수 증감율(전년동월대비)은 2017년 2월 6.3%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기록
- 2017년 7월 호텔업 생산지수는 116.0를 기록하여 2016년 7월의 124.9에 비해서 7.1% 감소함

- 중국인 관광객의 급감이 호텔업 부진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

- 지난 수년간 중국인 관광객 급증은 국내 관광산업의 성장을 견인(2016년 기준 중국인 방문객은 807만 명으로 전체 국내 방문객(1,724만 명)의 46.8%를 차지)
- 한국 관광을 제한하는 중국 정부의 비공식 조치(2017년 3월) 이후, 중국인 방한 관광객이 급감
- 중국인 관광객은 2017년 3월 전년동월대비 40.0% 감소한 약 36만 명을 기록하였고, 7월에는 69.3% 감소한 약 28만 명에 머물고 있음

< 호텔업 생산지수 증감률 추이 >



자료 : 통계청.

주 :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 중국인 방문객 추이 >



자료 : 한국관광공사.

○ (주요 기업 실적) 면세점을 방문하는 중국인 쇼핑 관광객에 의존하고 있는 호텔신라, 호텔롯데 등 주요 업체들의 영업실적이 크게 악화

- 주요 기업인 호텔신라와 호텔롯데의 상반기 실적은 부진하며, 호텔롯데의 실적 부진이 더욱 뚜렷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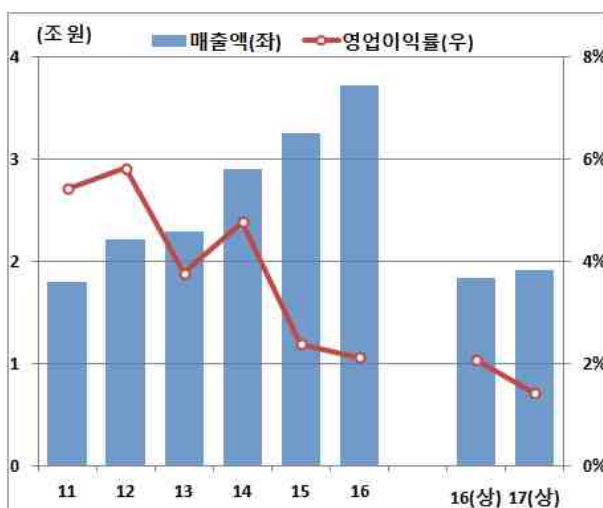
- 호텔신라의 2017년 상반기 매출액은 전년도 상반기에 비해 4.2% 증가한 1.9조 원을 기록했으나, 영업이익률은 2.1%에서 0.7%p 감소한 1.4%에 불과함
- 호텔롯데는 상반기 매출액이 전년도 상반기에 비해 5.0% 감소한 3.0조 원을 기록했고, 영업이익도 적자 전환하여 영업이익률은 -3.0%에 그침

- 이는 중국인 관광객이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정책의 변화로 면세점 부문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기 때문

- 호텔신라와 호텔롯데의 전체 매출액 중 면세점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90%, 84%이고, 면세점 매출 중 중국인 관광객이 차지하는 비중은 양사 모두 60%를 상회
- 중국인 관광객의 급감은 호텔신라와 호텔롯데의 영업실적 악화로 직결
- 최근 정부는 신규 면세점 사업자를 다수 선정하였고, 기존업체와 신규업체 간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음

○ (시사점) 업황 부진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반얀트리, 블룸비스타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통해 수익을 다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

< 호텔신라 영업실적 >



자료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 호텔롯데 영업실적 >



자료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 **한중일 관광경쟁력 평가와 시사점**

○ (현황) '2017년 WEF(World Economic Forum) 관광경쟁력 평가'에서 일본의 종합 및 부문별 순위는 한국, 중국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평가됨

- 한중일 3국 중 일본은 종합평가 4위를 기록하며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
 - 일본과 중국은 136개국 중 각각 종합 4위, 15위로 평가되었으며, 4개 분야(Subindex) 중 자연·문화자원 부문이 가장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확인됨
 - 반면, 한국의 관광경쟁력은 종합 19위로 3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인 가운데 관광정책·기반조성 부문은 47위를 기록하며 4개 평가 항목 중 경쟁력이 가장 취약함
- 일본은 14개 부문별(Pillar) 평가에서도 3국 중 가장 높은 경쟁력을 나타냄
 - 일본은 부문별 항목 중 10개 부문에서 중국, 한국에 비해 높은 평가를 받은 가운데 국제 개방성(10위), 육상·항만운송(10위)의 경쟁력이 뛰어난 것으로 확인됨
 - 중국은 가격경쟁력(38위), 자연자원(5위), 문화자원·비즈니스 여행(1위) 부문의 경쟁력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임
 - 반면, 한국은 모바일, 인터넷 활용 등을 평가하는 ICT 준비(8위)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중국, 일본에 뒤처져 있으며, 특히 티켓, 호텔 비용 등 가격 경쟁력(88위), 자연자원(114위) 부문이 낮은 수준으로 평가됨

○ (시사점) 국가 관광산업 경쟁력 개선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 뿐 아니라 가격 경쟁력 확보, 서비스 제고 등을 위한 기업 차원의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임

< 2017년 WEF 항목별 관광경쟁력 평가 >

국가	환경조성					관광정책 및 기반조성				인프라			자연·문화 자원	
	비즈니스 환경	인적 자원 노동 시장	보건 위생	안전 보안	ICT 준비	국제 개방성	관광 정책 우선 순위	가격 경쟁력	환경지속 가능성	항공 운송	육상·항만 운송	관광객 서비스	자연 자원	문화 자원·비즈니스 여행
한국	44	43	20	37	8	14	63	88	63	27	17	50	114	12
중국	92	25	67	95	64	72	50	38	132	24	44	92	5	1
일본	20	20	17	26	10	10	18	94	45	18	10	29	26	4

자료 : WEF, The Travel & Tourism Competitiveness Report 2017 재구성.

1) 한국(종합 19위, 환경조성 24위, 관광정책·기반조성 47위, 인프라 27위, 자연·문화자원 22위), 중국(종합 15위, 환경조성 63위, 관광정책·기반조성 84위, 인프라 51위, 자연·문화자원 1위), 일본(종합 4위, 환경조성 13위, 관광정책·기반조성 11위, 인프라 13위, 자연·문화자원 7위).

□ 국내 경기 및 산업 동향 (~'17년 7월)

[경기]
 [동행지수] 광공업과 서비스업 생산은 증가했으나 수입 감소로 보합

[건설]
 [건설수주] -30.8%
 건축과 토목 수주 모두 감소하면서 하락

[관광]
 [관광생산] -0.5%
 사드 갈등, 북한 리스크 등으로 외국인 관광객 수가 감소해 하락

[IT서비스]
 [IT서비스] +17.8%
 매출 및 채산성이 개선되면서 상승

주 : 전년동월대비(경기동행지수는 전월대비).

< 국내 경기 동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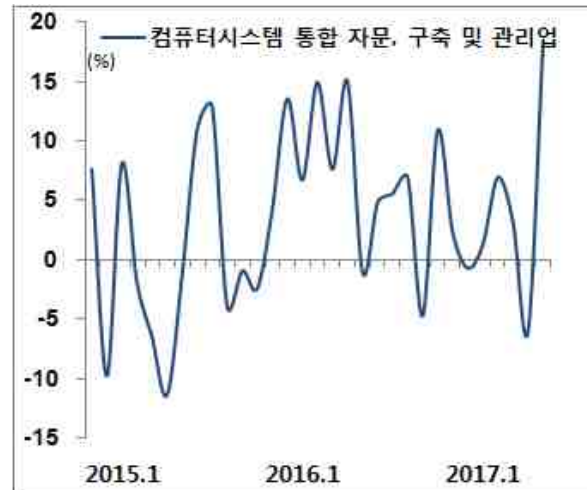
< 건설 경기 동향 >



< 관광 경기 동향 >



< IT서비스 경기 동향 >



자료 : 통계청, 한국은행, 미래창조과학부.

주1) 증가율은 전년동월대비 기준.

2) 건축수주는 경상가격, 건축기성은 불변가격 기준, 건축수주 증가율은 3개월 이동평균 증가율.

3) 여행비지출전망CSI는 100p이상이면 긍정적 답변이, 이하이면 부정적 응답이 많음을 의미.